

주요 내용

1. [한국 노인 실태]

한국 노인의 여가 활동 순위, '산책' 다음으로 '종교활동'!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1) 한국교회의 헌금 현황
- 2) 2022 우리나라 가구 소득 양극화
- 3) 2022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소득 현황

3. [넘버즈 칼럼] 이단의 취약한 미혹교리



한국 노인의 여가 활동 순위, ‘산책’ 다음으로 ‘종교활동’!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2위(2020) 수준이다. 현재 60세 남자는 84세까지, 60세 여자는 88세까지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높아진 고령층의 비율은 노인부양률을 높여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많은 기관에서 노인의 문제를 다룬 리포트를 내고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그동안 <넘버즈>에서도 노인 관련 주제의 여러 리포트를 발행했다.*

한국교회가 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신교인의 고령화가 총 인구의 고령화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넘버즈 181호>에서는 한국 노인의 실태를 통해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의 문제와 아픔을 살펴본다. 이러한 자료들이 한국교회가 점점 중요해지는 노인 목회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퇴직자 삶의 실태(48호),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 (120호), 고령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159호)

**통계청, 인구센서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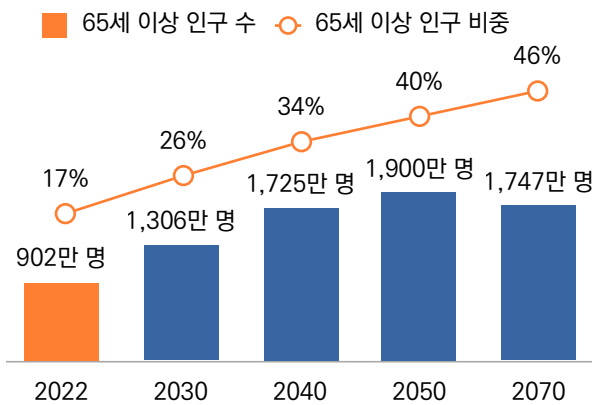
01

[대한민국 노인 현황]

65세이상 노인 비율, 2022년 17% → 2070년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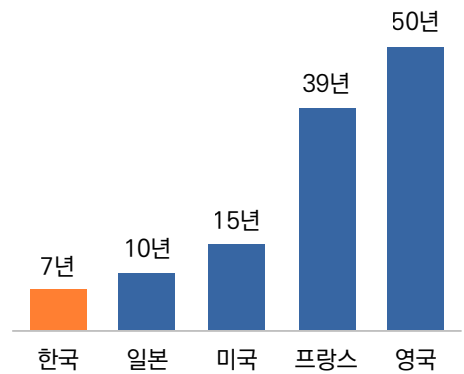
- ▶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17%인 902만 명이며, 현재의 인구 추세로 보면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70년에는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그림] 고령인구 추이



*자료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2021. 12. 9.

[그림] OECD 주요국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층 20% 이상) 도달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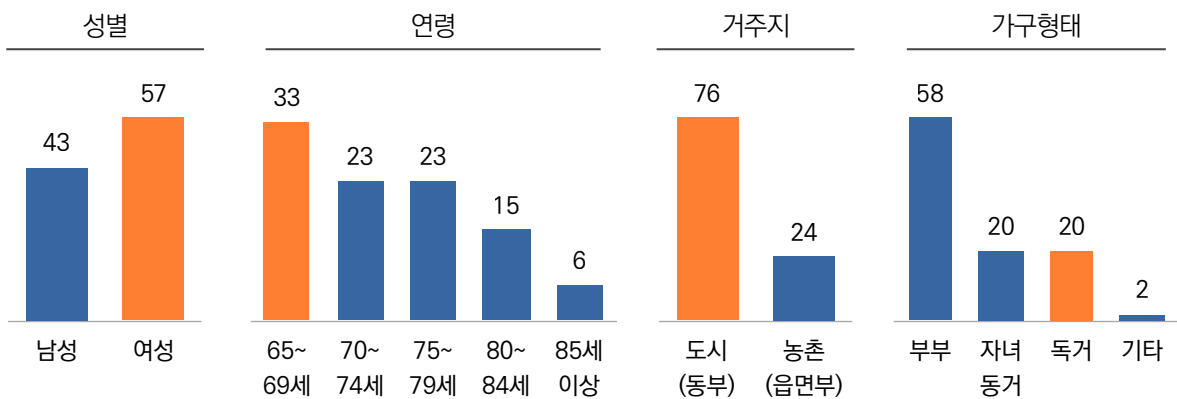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UN, 경제사회국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 2022.07

◎ 한국 노인(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혼자 살아!

-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명 중 6명(57%)이 여성, 4명 중 3명(76%)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5명 중 1명(20%)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고령인구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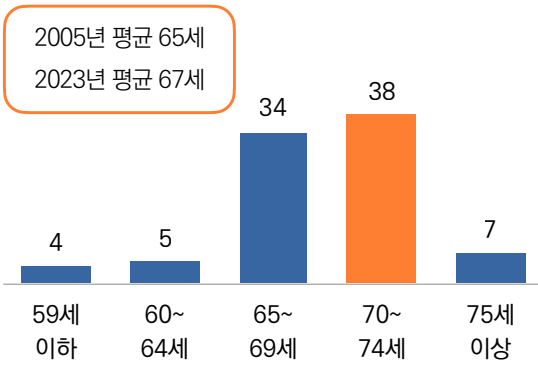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2020.11. (전국 만 65세 이상 10,0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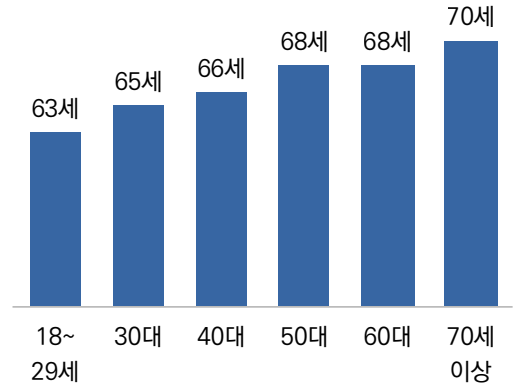
◎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67세!

- ▶ 한국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일까?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0~74세 구간이 38%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전체 평균으로 보면 67세이다. 이는 8년 전인 2005년 같은 조사보다 2살 증가한 수치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인식하는 노인 나이의 기준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의 나이’를 높게 보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주관적 노후생활 시작된다고 보는 나이**
(18세 이상 대상, %)



[그림] 연령별 주관적 노후생활이 시작된다고 보는 나이 (평균)



*자료 출처 : 갤럽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529호'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2023. 2.10
**의견 유보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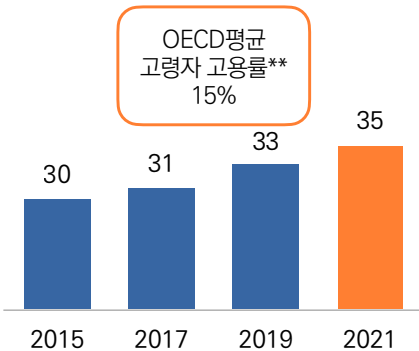
02

[노인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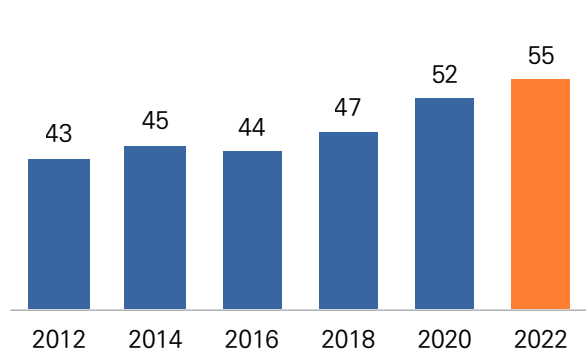
한국 노인, 2명 중 1명 이상(55%)은 일하고 싶어해!

- ▶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5%로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며, 이는 OECD 평균(2020년)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 ▶ 2022년 65~79세 노인의 55%가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12%p 증가한 것이다.

[그림] 노인(65세 이상)의 고용률 (%)



[그림] 노인(65세 이상)의 근로 희망률** (65~79세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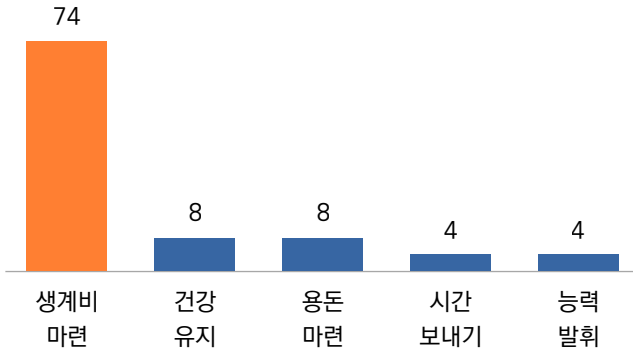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출처 : OECD, Employment Statistics, 2020기준

*자료 출처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점 척도임

◎ 노인이 일하는 이유, 4명 중 3명은 생계 때문!

-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생계 마련'(74%)이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노인 복지가 충분하지 않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노인이 현재 일하는 이유 (65세 이상 현재 근로자,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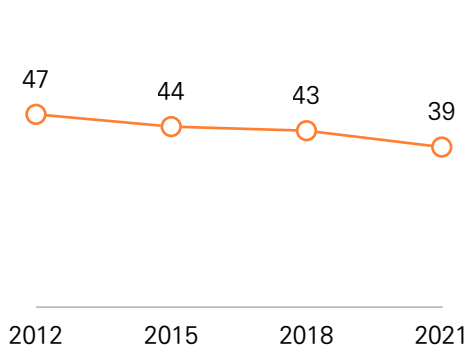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은퇴연령층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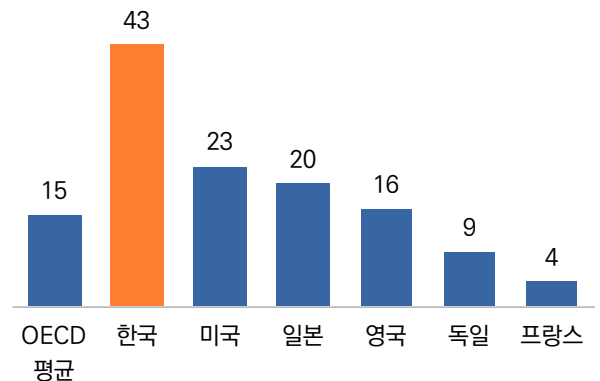
- ▶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은 2021년 기준 39%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 상태에 있는 셈으로,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그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처분가능소득 기준, %)



*자료 출처: 통계청, 「2022년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 2022.12.1

[그림] OECD 주요국의 상대적 빈곤율** (66세 이상, 2019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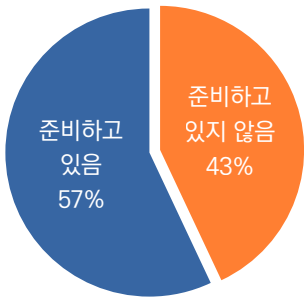
*자료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2.9.4. 기준)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의 비율

03

[노후 준비] 노인 43%, 노후준비 안돼!

- ▶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노인은 57%, 준비하고 있지 않는 노인은 43%로 나타났다.
- ▶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적금' 17%, '직역연금' 11% 순이다. 지난 10년간 국민연금은 16%p 증가하였으나, 예·적금은 11%p 감소했다.

[그림] 노후 준비하고 있는 비율 (65세 이상 고령자, 2021년 기준)



[그림] 노후 준비 방법 (65세 이상 고령자, 상위 5위, %)



*자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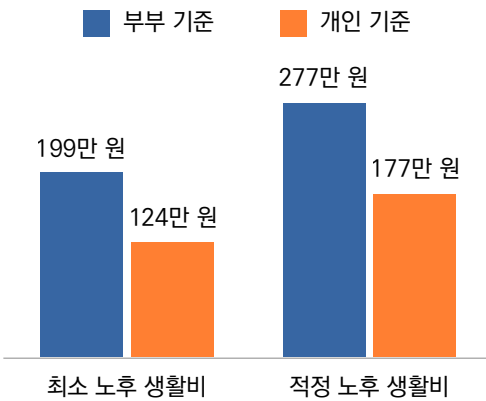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만 가입할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이 대표적.

***자료 출처: 한국경제, '월급 440만원' 받는 30대...30년 후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2021.11.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47437>)

◎ 노인의 실제 소득, 적정 생활비에 못 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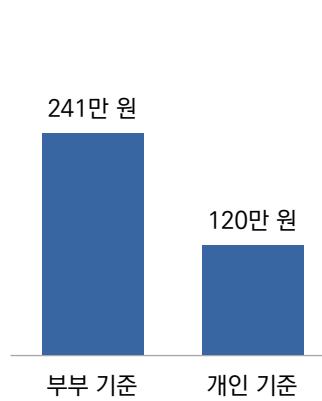
- ▶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개인이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로는 '부부 기준' 277만 원이며 '개인 기준'은 177만 원, 최소 노후 생활비로는 '부부 기준' 199만 원, '개인 기준' 124만 원이었다.
- ▶ 실제 노인의 총 소득은 '부부 기준' 241만 원, '개인 기준' 120만 원으로 둘 다 적정 노후 생활비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림] 노후 필요 자금 (50대 이상 중고령자, 월평균)



*자료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2022.12. (전국 50대 이상 6,117명)

[그림] 노인의 실제 소득 (65세 이상 고령자, 월 평균)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2020.11. (전국 만 65세 이상 10,0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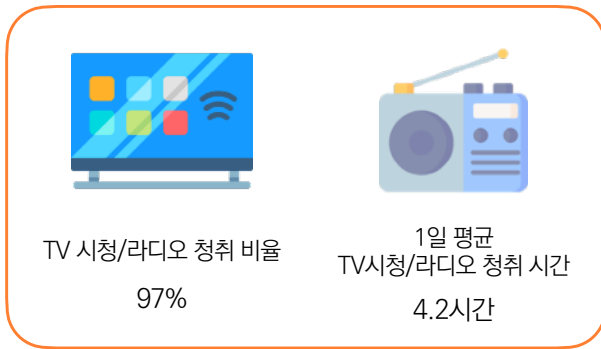
04

[노인의 일상생활]

하루에 4시간 이상 TV 시청, 라디오 청취

- ▶ 우리나라의 노인의 대부분은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를 하고 있는데(97%), 1일 평균 시청시간은 4.2시간에 달하며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39%로 나타나 하루 중 많은 시간을 TV와 라디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 (65세 이상 고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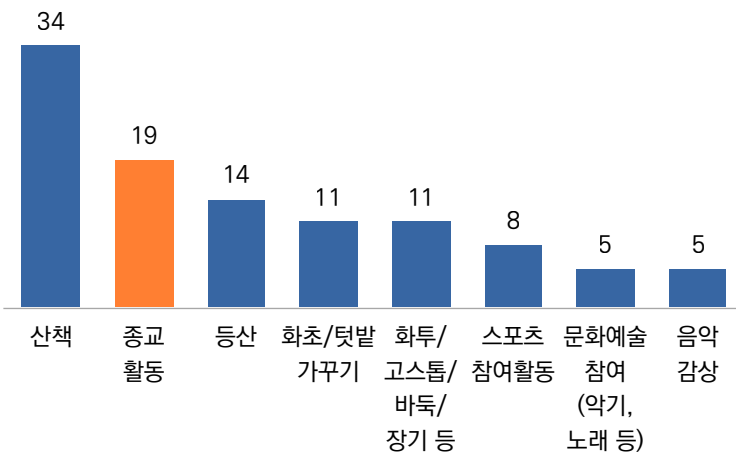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2020.11. (전국 만 65세 이상 10,097명)

◎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 산책 등 휴식활동을 제외하면 종교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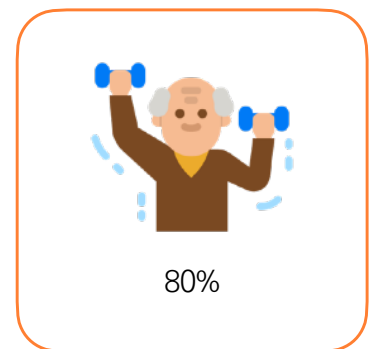
- ▶ 지난 1년간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 참여율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은 80%로 높았는데, 산책 등의 휴식활동을 제외하면 종교활동이 19%로 가장 참여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노인의 지난 1년간 참여한 여가문화 활동 종류 (1+2위, 상위 8위,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2020.11. (전국 만 65세 이상 10,0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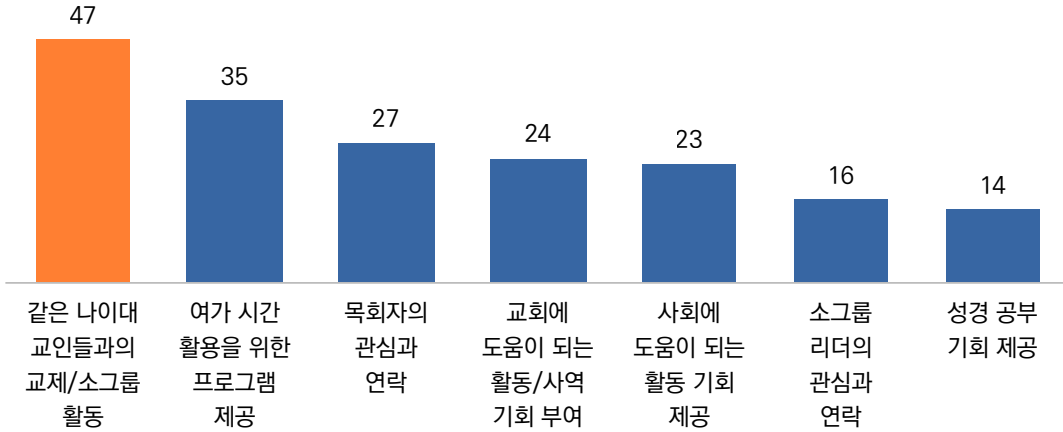
[그림]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참여율



◎ 고령 교인, 다양한 활동 욕구를 위해 교회의 역할 기대하고 있어

- ▶ 65세 이상 고령 교인들에게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47%)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35%)이었다. 그 외에도 '교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24%),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23%)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교인의 활동 욕구를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그룹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점 (교회 출석하는 65세 이상 교인,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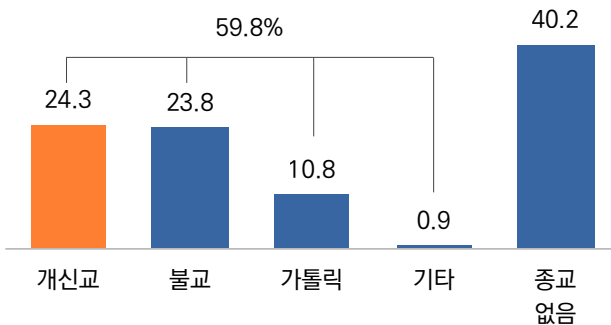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아드몬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교인의 신앙생활 및 의식에 대한 조사' (만 65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2045명, 온라인 조사와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2022.5.18-6.28)

05

[노인의 종교] 노인 4명 중 1명은 개신교!

- ▶ 노인의 사회참여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종교활동이다. 노인의 59.8%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별로는 개신교 24.3%, 불교 23.8%, 가톨릭 10.8% 순으로 개신교가 불교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 ▶ 전통적으로 고령층의 경우 불교인구가 개신교보다 더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어느새 고령층에서도 개신교가 불교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노인의 종교 현황 (65세 이상 고령자,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노인실태조사', 2020.11. (전국 만 65세 이상 10,097명)

**5점척도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음, 별로 할 생각 없음, 전혀 할 생각 없음)

06

[노인의 건강] 노인, 임종 전까지 10년 이상 아픈 채로 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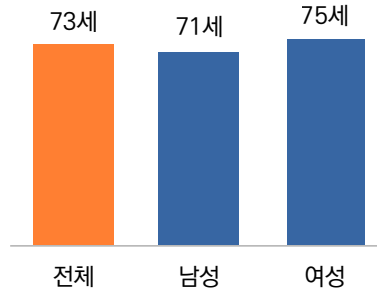
- ▶ 2021년 60세의 예상 사망 나이는 여성이 88세, 남성이 84세이다. 남녀 평균 건강나이(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73세인 것을 감안하면 임종하기까지 10년 이상을 아픈 채로 지내는 셈이다.

[표] 2021년 노인의 예상 사망 나이**

	남성	여성
현재 60세	84세	88세
현재 70세	85세	89세
현재 80세	89세	91세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생명표]
**기준 나이에 기대여명을 더한 나이

[그림] 한국인의 건강수명** (2019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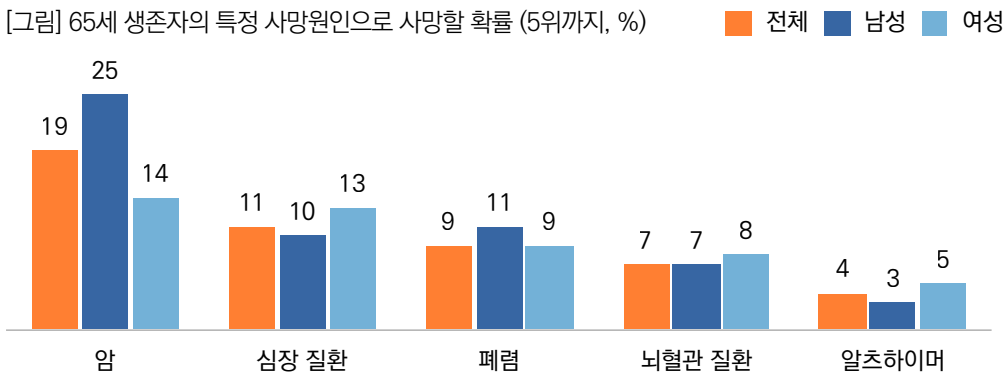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22년 12월 인출)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

◎ 노인의 죽음, 암으로 사망할 확률 가장 높으며, 남성은 폐렴, 여성은 심장 질환 위험 더 높아

- ▶ 65세 생존자를 기준으로 남성은 장차 사망할 확률이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65세 생존자의 특정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 (5위까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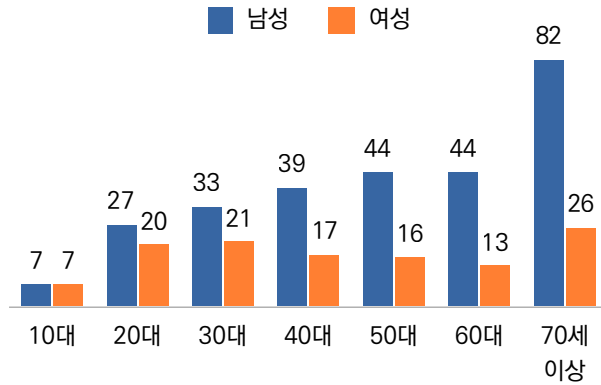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생명표]

◎ 70대 이상 남성의 자살률,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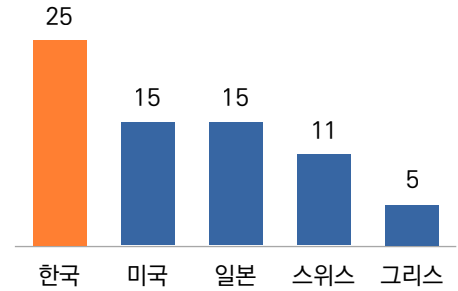
- ▶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 한국의 자살률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인데, 그 중에서 70대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우리국민 전체 평균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다.

[그림] 한국인의 자살률 (2021, 명/10만 명)



*자료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OECD 주요 국가의 자살률 (명/10만 명)



*자료 출처 : OECD, OECD Health Statistics(2022년12월 인출), 연령표준화 자살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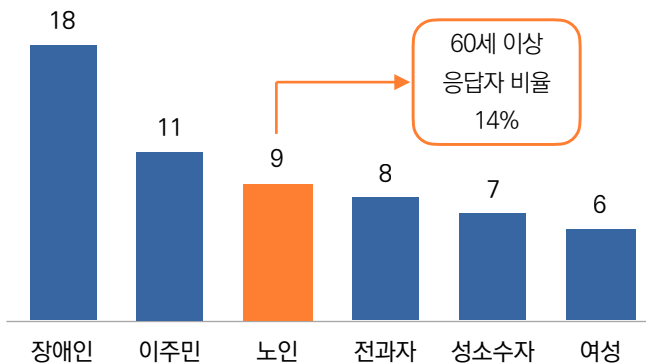
07

[노인과 사회문제]

노인 인권침해와 차별, 장애인과 이주민 다음으로 높아!

- ▶ 한국인의 9%는 노인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이주민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다.
- ▶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60세 이상 응답자가 14%로 응답해, 노인 당사자가 인식하는 차별의 정도가 더 심한 것을 알수 있다.

[그림] 인권침해,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 (일반국민 대상, 상위 6위, %)



*자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 2021.12 (전국 19세 이상 성인 17,593명)

최근 지하철을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엇갈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6131500502>)

서울 지하철 운영자 입장에서는 노인 무료 승차가 경영 수지에 큰 부담이 되므로 대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인으로 인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를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다. 노인 무료 승차 제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인 무료 이용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 심지어 노인들조차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상 만 65세 이상을 일컫는데 2021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9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노인 인구가 7%를 넘으면 그사회는 ‘고령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며,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2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이에 따른 문제, 즉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 노인 빈곤, 노인 외로움 및 우울증, 노인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한다.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노후에 부부 기준으로 최소 199만 원, 적정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소득은 부부 기준 24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노후에 일을 하지 않고 자산 소득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대부분은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막막하게 된다. 은퇴 노인의 39%가 빈곤층이라는 이번 결과를 보아도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노인 빈곤, 외로움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살도 많이 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살률이 높는데 특히 70대 이상 노인 자살률(10만 명당 자

살자 수)이 남자는 82명, 여자는 26명이었다. 이는 60대 이하보다 최대 2배 정도 높은 비율이라서 노인 자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인들은 인권침해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권침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으로 ‘장애인’을 꼽았지만(18%), ‘노인’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9%로 세번째로 높았다. 노인 당사자들이 노인을 응답한 비율은 14%로 더 높아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차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차별받는 것은 전통 사회와 달리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의 위상이 격하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차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노인 문제를 노인 개인이나 가정에 맡겨 두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회가 이에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만 큼이나 노인 문제 발생이 심각하고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보호가 미흡한 형편이다.

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지역 사회 곳곳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들을 돌보려는 가치를 가진 기관이 ‘교회’ 외에 또 있을까? 어느 지역 사회에나 있는 기관은 행정복지센터, 학교, 경찰서 등인데 이들은 고유 기능이 있어서 자기들의 일을 처리하기에도 급급할 뿐이다. 모든 지역에 다 있으면서 이웃을 섬길 마음이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노인들의 벗이 되고 돌봄이가 되고 놀이터가 되어서 노인들이 의지하는 곳이 될 때, 노인의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다. 이 땅의 소외되고 약한 자들 섬길 의무와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노인에게 ‘안정된 짝’이 되는 교회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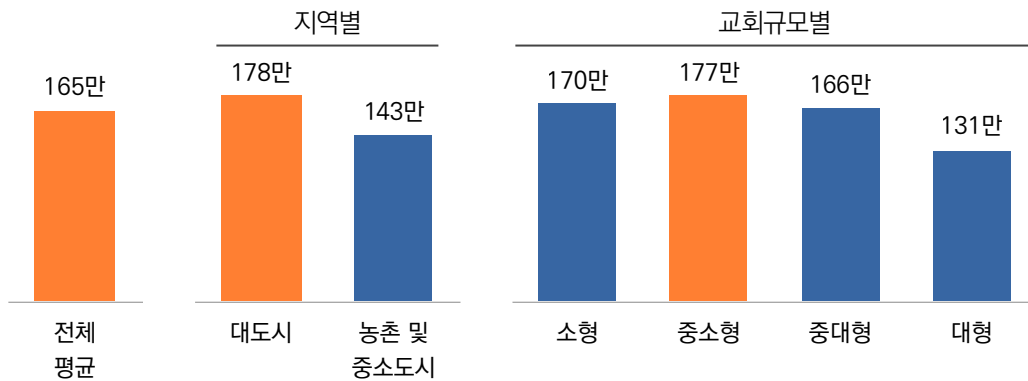
- 1.[한국교회의 헌금 현황]
- 2.[2022 우리나라 가구 소득 양극화]
- 3.[2022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소득 현황]



한국 교회 성도 1인당 헌금액, 대형교회가 중소형 교회 대비 적어!

- ▶ 최현중 서울신학대학교 교수가 학술지 '신학과 사회'에 2017년 발표한 논문 '한국교회 재정구조 분석'을 통해 한국 개신교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발표 시점이 6년 전이지만 180여 개 교회의 연말 예결산 내용을 토대로 교회의 재정구조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그동안 거의 없고, 유의미한 자료라 판단되어 해당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다.
- ▶ 조사 시점인 2015년 기준, 한국 개신교 성도 1인당 헌금액은 165만 원이었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평균이 178만 원, 농촌 및 중소도시 143만 원으로 대도시가 35만 원 정도 높았다. 교회 규모별로는 대형교회가 중소형 교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헌금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개신교 성도 1인당 연간 헌금액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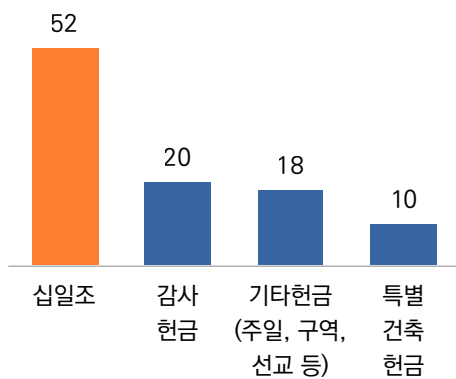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신학과 사회, '한국교회 재정구조 분석', 최현중, 2017.08. (180개 교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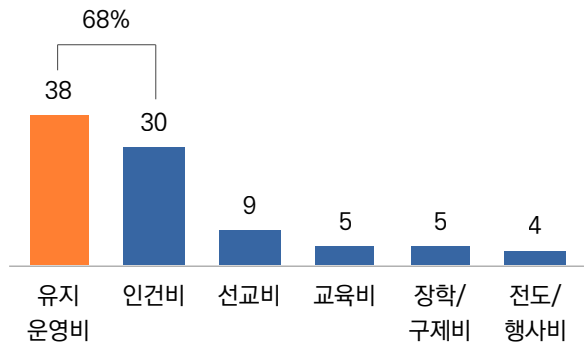
◎ 교회 재정 지출, '유지운영비'와 '인건비' 비중만 68%!

- ▶ 전체 헌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십일조'가 절반(5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감사헌금' 20% 순이었다.
- ▶ 헌금(교회 재정)이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유지운영비'(38%)와 '인건비'(30%)가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압도적으로 컸고, 그 외에 '선교비' 9%, '교육비' 5%, '장학/구제비' 5% 등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전체 헌금의 비중 (%)



[그림] 교회 재정 지출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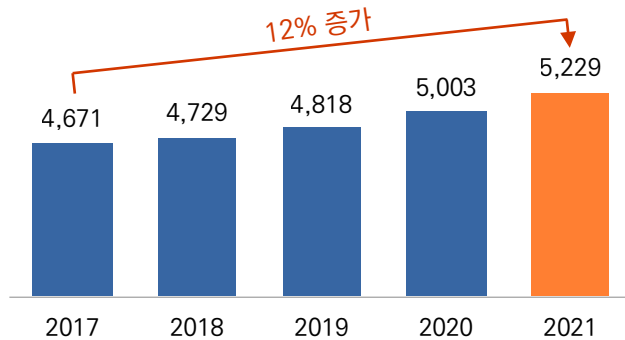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신학과 사회, '한국교회 재정구조 분석', 최현중, 2017.08. (180개 교회 조사)



우리나라 가구 소득, 4년간 꾸준히 증가 추이!

- ▶ 통계청에서 작년 12월 발표한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즉 전체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 연간 5,229만 원이었다. 이는 2017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는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연도별 추이 (만 원)



*자료 출처 : 통계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2.1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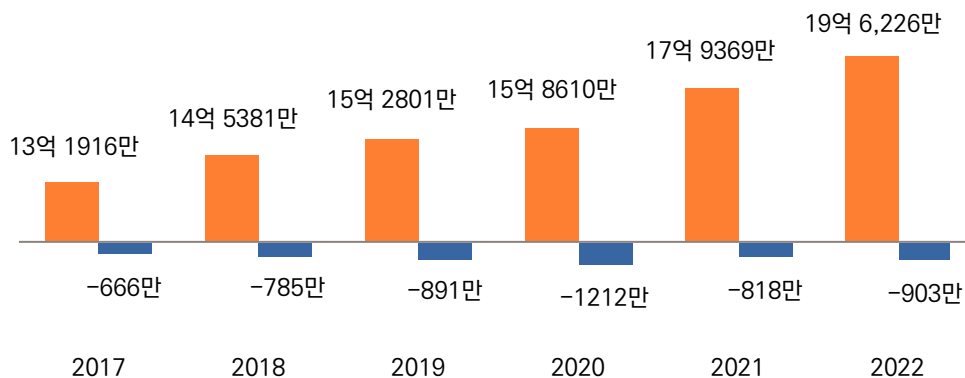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사적이전소득) -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가구간이전지출, 이자비용 등)

◎ 2022년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 상위 10% 19억 6천만 원, 하위 10% -9백만 원!

- ▶ 통계청의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 상위 10%의 순자산(자산-부채)은 2022년 19억 6,226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가구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없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22년 49%나 재산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 ▶ 반면 하위 10%의 평균 순자산은 2022년 기준 -903만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았다. 또, 하위 10% 가구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순자산이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상하위 10% 가구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순자산 상하위 10% 평균액 (가구기준, 원)

■ 상위 10% 가구 ■ 하위 10% 가구



*자료 출처 : 통계청 KOSIS, 가계금융복지조사(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자료) 참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D03&conn_path=12)



2022년 대한민국 최상위 채널 30개 파워 유튜버, 평균 추정 연소득 약 23억!

- ▶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최상위권에 랭크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유튜버 현황을 살펴보았다.
- ▶ 작년 12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희망 직업 조사에서 '크리에이터'가 운동선수(1위)와 교사(2위)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 ▶ 대한민국 최상위 채널 30개 파워 유튜버의 2022년 평균 추정 연소득은 22억 6618만 원으로 조사돼 전년도 평균 추정 연소득 15억 3548만 원 대비 무려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널의 평균 구독자 수는 517만 명, 평균 누적 시청횟수는 무려 19억 건이었다.

[그림]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현황 (최상위 30개 채널 기준)**



*자료 출처 : 교육부,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19

**자료 출처 : Forbes Korea, 2022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100, 2022.08.23.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6589>)

***2022년 7월 말 기준임

◎ 2022년 대한민국 유튜버 1위, 게임/창작 애니메이션 채널 '계향쓰'!

- ▶ 2022년 대한민국 상위 10위까지의 유튜브 채널을 살펴보면 1위는 유튜버 '계향쓰(GH'S)'가 차지했다. 구독자 436만 명을 보유하고, 추정 연소득은 52억 1404만 원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이 주 콘텐츠였다.

[표] 2022 대한민국 유튜버 순위 (상위 10위까지)

순위	채널	분류	구독자수(만 명)	추정 연소득(원)
1	계향쓰(GH'S)	게임	436	52억 1404만
2	엘언니	엔터테인먼트	181	52억 1155만
3	5분 Tricks	터득법	457	47억 9578만
4	원정맨	테크	176	43억 1157만
5	Hongyu ASMR 홍유	피플	1,360	34억 7629만
6	야미보이	여행	689	29억 1775만
7	Jane ASMR 제인	피플	1,670	27억 7925만
8	햄지	엔터테인먼트	1,000	25억 7061만
9	이공삼	엔터테인먼트	898	24억 3328만
10	SIO ASMR	피플	790	22억 2431만

*자료 출처 : Forbes Korea, 2022 대한민국 파워 유튜버 100, 2022.08.23.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36589>)

이단의 취약한 미혹교리

양형주 목사

(바이블백신센터 원장, 대전도안교회)

최근 들어 신천지가 언론매체를 통해 상당한 광고물을 내보내고 있다. 서울의 중심 한복판 옥외광고판에서 신천지 광고가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이단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이단에 빠진 이들은 개신교인 전체의 10%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이단의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혹자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런다고 한다. 마치 진짜 지폐를 많이 보면 위조지폐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절대 이단에 빠져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코로나로 물의를 빚은 한 이단 단체에서 나온 한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단 단체에 신학을 공부한 기성교회 목회자만 무려 350명이나 빠졌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단을 예방하는데 충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사건을 생각해 보라. 사탄이 무엇으로 접근해서 미혹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고 말았다.

대부분 이단 단체의 교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미혹 교리이고 둘째는 핵심교리다. 미혹 교리는 기존 성도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뒤흔드는 교리를 말한다. 이들은 성도들이 헛갈려 하는 성경 구절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접근한다. 이단 단체는 이런 미혹교리들로 주로 성도의 구원관과 종말관을 흔드는 질문들을 던진다.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틈을 파고들어 믿음의 확신을 흔든다.

- *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거 알아?
- * 세례요한이 지옥에 간 것 알아?
- *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가 정말 7일 만에 완성되었다고 생각해?
- *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난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어?
- *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아? 666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
- *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아?
- * 안식일 원래 토요일인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 일요일(Sunday)로 변경했던 것을 아니?
- *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감추셨다고 했어, 난 비유의 진짜 의미를 아니?
- * 너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아니? 계시록을 통달한 분이 계신데 들어보지 않을래?
- *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하는데, 너는 성경에 감추어진 말씀의 짝을 제대로 찾은 적 있지?

이러한 질문들로 믿음이 흔들리면 이단 단체는 자신들의 핵심교리로 서서히 안내한다. 핵심교리에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교리들이 담겨 있다. 그 핵심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하나님은 시대별로 구원자를 보내신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신약시대에는 예수, 마지막 시대에는 새 이름의 보혜사가 온다.
- * 마지막 보혜사는 이긴 자요, 계시록의 인봉을 푼 자요, 예수의 영이 임한 분이다.
- * 마지막 보혜사는 동방의 땅끝에서 온다.

- * 마지막 보혜사는 계시록이 성취되는 실상을 육하원칙에 의거해 정확하게 알려준다.
- * 마지막 보혜사는 구름 탄 자, 곧 예수의 영이 임한 자다.
- * 신자는 결국 하늘 순교자 14만 4천의 영과 합일하여 영생을 얻는다.

이러한 교리들을 보면 실소부터 나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교리들을 믿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단 단체는 이런 교리들은 절대 먼저 들이밀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미혹교리 먼저 들이민다. 그리고 미혹 교리에 빠져 이단 단체가 풀이하는 식의 성경해석에 매료되고 나면, 서서히 교주를 보혜사로 믿게 하는 교리를 조금씩 가르친다. 결국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왜곡된 이단들의 성경관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결국은 이단 교주를 보혜사로, 이 시대의 재림주로까지 믿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라! 이단은 절대 먼저 큰 돌을 던지지 않는다. 항상 작은 돌부터 던진다. 그러면서 서서히 성도들의 신앙에 균열을 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무너뜨리고 만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이단을 따르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이단이 교묘하게 접근하는 이런 미혹 교리들이 무엇인지 성도들로 하여금 교묘한 미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신학생과 현장 목회자들에게도 이단 교리의 특징과 그들의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31호\(2023년 2월 4주\)](#)

- 정부 출범 9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이재명 대표 수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존폐 등

◎ 사회 일반

[한국인의 행복 점수 10점 만점에 6.11점...OECD 끝에서 7번째](#)

연합뉴스_2023.02.26.

["저출산은 청년세대의 비명소리...결혼·출산 설득은 역효과"](#)

연합뉴스_2023.02.22.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OECD 평균의 절반 못 미쳐](#)

연합뉴스_2023.02.22.

["자식이 부모 모셔야" 응답 21%뿐...15년새 '반토막'](#)

국민일보_2023.02.27.

[이과 쓸림 넘어 '의대 쓸림'...최상위권 인재 블랙홀 된 의대](#)

연합뉴스_2023.02.26.

[영끌-빚투에... 청년 5명중 1명 '소득 3배이상 빚더미'](#)

동아일보_2023.02.28.

[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첫 실태조사](#)

연합뉴스_2023.02.24.

[아빠가 살림해요...전업주부 남성 21만명 돌파](#)

중앙일보_2023.02.23.

[한국에 도움될 나라는 중앙아시아국-튀르키예-말레이시아 순](#)

연합뉴스_2023.02.22.

◎ 청년 / 청소년

[고교생, 경제지식 얻는 주된 경로는 학교수업보다 TV·SNS](#)

연합뉴스_2023.02.23.

◎ 경제 / 기업

["여보, 월 500만원 벌어 힘든데, 우리가 평균 가구 이상이래요"](#)

매일경제_2023.02.23.

[MZ세대 "대기업은 손흥민-BTS 같은 국가대표"](#)

동아일보_2023.02.22.

["10년후 AI-로봇산업 유망... 韓기업, 반도체 가장 잘할 것"](#)

동아일보_2023.02.22.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젊은 직원들 퇴근하면 연락 안 돼...나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

[한국경제_2023.02.24.](#)

◎ 국제

["90일은 꼭 남성이 써라"...부부 육아휴직 의무화한 이 나라](#)

[매일경제_2023.02.22.](#)

◎ 기독교 / 종교

[장기 선교사의 고령화 빨간불... 50대 이상이 63% "은퇴 선교사 대책 시급"](#)

[국민일보_2023.02.21.](#)

[예성 목사·장로 3명 중 2명 "정년 연장 반대"](#)

[더미션\(국민일보\)_2023.02.28.](#)

◎ 이슈큐레이션

[예배 참석자가 줄어들자 '절망사'가 늘어난 까닭은](#)

[복음과도시_2023.02.26.](#)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대덕교회(담임목사 유재경)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연구소 소식 |

- 넘버즈 모음집 「2022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4」를 후원자분들에게는 이미 배포해 드렸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나, 후원자가 아니지만 꼭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